

자료번호	1
제 호	50

국 통 74-1-28  
24-1-28

共產圈의 革命모델分析과 이에 따르는  
北韓의 對南革命戰略分析 및 展望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5/5

1974. 7.

國土統一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上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4. 7.

研究責任者 : 김 경 원

# 目 次

I. 머릿말.....	1
II. 共產革命戰略의 比較分析.....	3
(1) 蘇聯共產革命戰略.....	3
(2) 中共共產革命戰略.....	16
(3) 「체코」共產「쿠데타」戰略.....	28
(4) 共產革命戰略의 性格.....	39
III. 北韓共產主義者들의 革命戰略.....	46
(1) 統一問題와 共產革命과의 關係.....	46
(2) 「南朝鮮革命」의 概念과 戰略.....	51
(3) 對南戰略의 展望.....	58
IV. 北韓의 對南戰略에  대한 對備策의 原則과 方向.....	61
(1) 共產化戰略과 對備策의 問題點.....	61
(2) 對共戰略의 原則.....	64

## I. 머 리 말

世界史的으로 二十世紀는 共產主義의 挑戰과 自由民主主義의 対応의 時代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共產主義의 思想的背景은 十九世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지만 政治的革命運動으로 世界秩序에 挑戰하기 始作한 것은 1917年 「러시아」革命으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以後 共產主義革命運動은 亞細亞와 「아프리카」地域까지 包含하는 世界的挑戰으로 번져 나갔으며, 이것은 드디어 自由民主主義의 対応을 불러 이르킴으로써 이른바 冷戰이라고 하는 對決狀態로 展開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共產主義勢力과 自由民主主義勢力間的 全世界的對決狀況속에서도 韓國은 다른 어떤 國家보다더 가장 심각한 共產主義의 挑戰에 直面하고 있다고 해도 過言은 아니다. 그것은 韓國이 分斷國이라는 特有的 條件과 北韓共產主義體制가 世界의 다른 어떤 共產體制보다도 가장 경직화되어 있는 極단주의적인 全体主義體制라는 事實에 起因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共產主義의 挑戰에 対応하는 것은 韓國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한 理念的鬭爭의 問題뿐만 아니라 國家的存在자체를 保存하는 政治的課業으로 認識되어야 한다. 다시말하면 韓國의 安保는 결국 對共戰略과 直結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觀點에서 本論文은 北韓共產主義者들의 革命戰略을 分析하고 이에 對備할 수 있는 戰略과 政策을 提示하고자 한다. 特히 本論文에서 우리는 北韓共產主義者들의 革命戰略을 科學的으로, 그리고

客觀적으로 把握하기 위하여 蘇聯과 中共을 包含하는 共產主義革命戰略을 比較分析함으로써 共產革命戰略의 一般的性格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여기에서 強調하고 싶은 點은 北韓共產革命戰略을 客觀적으로 理解하는 것이 얼마나 重要的 일인가 하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의 先入觀과 常套的인 反共公式의 노예가 될 위험성이 있다. 물론 우리들에게 重要的 것은 共產主義者들과의 競爭에서 實際로 승리하는 것이며 우리들 스스로의 反共性을 公証하는 것이 결코 重要的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本論文에서 우리는 共產主義者들의 革命戰略을 있는 그대로 客觀적으로 把握하는 것을 가장 重要的 目的으로 한다는 點을 밝혀 두고자 한다.

## Ⅱ. 共產革命戰略의 比較分析

### (1) 蘇聯共產革命戰略

1917年 3月 「러시아」革命前夜에 「볼셰빅」共産党的의 黨員數는 約 23,600 名밖에 되지 못했다.

그리고 「볼셰빅」指導者 「레닌」은 當時 「스위스」에 亡命中에 있으면서 「지노비에브」와 함께 「조치알 데모크랄」(Sotsial-Demokrat)을 편집하고 있었고 주로 다른 共産主義者들과 論爭이 나 벌이는 것이 그의 政治活動의 大部分을 차지 하였다.

當時의 情勢만 봐서는 1917年の 해가 저물기 전에 「볼셰빅」黨이 그 거대한 「러시아」의 政權을 장악하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1917年 3月 8日 「페트로그라드」에서 始作된 빵을 달라고 외치는 軍중들의 봉기는 全國에 罷業運動으로 번졌으며, 軍部內에 까지 미치게 되어 革命의 불길로 化하였으며, 드디어 「짜아르」政權은 무너지고 結果적으로 「러시아」 全人口의 極少數 밖에 이루지 못하고 있던 「볼셰빅」黨에 依하여 權力은 장악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劇的인 共產革命의 성공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특히 모든 예상을 뒤엎고 「볼셰빅」黨이 權力을 장악할 수 있었던 理由 또는 原因은 어디에 있으며 權力 쟁탈에 성공한 「볼셰빅」의 戰略과 戰術은 무엇이었는가?

「볼셰빅」에 의한 政權爭奪이 可能했던 要因은 大體로 當時 「러시아」社會의 歷史的背景과 「볼셰빅」의 「독트린」, 組織 및 戰略으로 区分하여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要素들은 實際로 相互作用하면서 有機적으로 革命過程을 이루었지만, 편의상 個別的으로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 (1) 歷史的 背景

모든 革命은 特定한 歷史的 背景속에서 發生한다. 따라서 鵝極적으로 革命이란 特定한 社會의 過去의 產物이라고 해도 過言은 아니다. 이런 觀點에서 생각할때 「볼셰빅」革命을 낳은 「러시아」 歷史의 背景에는 다음과 같은 決定的인 要素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 「러시아」史에 있어서의 獨裁政治의 遺産을 들지 않을 수 없다. 特히 「유럽」史에 있어서 가장 反動的인 姿勢를 固守한 「러시아」 「짜아르」政權은 「니콜라스」2세에 이르기까지 王權神受說을 고집할 정도였다.

「짜아르」政權의 反動的 獨裁主義는 一面 行政의 中央集權化를 가져 왔지만 그러나 그것은 前近代의 性格 때문에 非能率을 극복하지 못했으며 結局 統治體制는 軍隊와 警察에만 依存하게 되었고 敎會와 地主階級을 除外한 國民大衆을 도외시한 體制였다고 할 수 밖에 없다.

勿論, 「크리미아」戰爭과 日露戰爭等에서 불명예스럽게 敗北를 당한 「짜아르들」은 權力의 部分的 양보를 약속할 수 밖에 없었지

만 곧 官權을 再主張하는 反動的 政策을 썼으며, 그 結果로 「짜아르」政權에 對한 모든 反對勢力은 極端化 내지 陰성화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짜아르」 「러시아」의 獨裁政治는 自体에 對한 反對勢力을 強化하는 結果를 招來했으며, 또한 革命後에 政權을 장악한 「불세빅」政權도 「짜아르」政權과 마찬가지로 獨裁主義的 政權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헤르젠」이 지적한 바와 같이 共產主義는 「짜리즘」을 뒤집어 놓은 것에 不過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불세빅」革命의 歷史 背景에는 西歐思想의 影響을 들지 않을 수 없다. 共產主義思想自体가 西歐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일찍이 「페테르」大王이나 「카테린」女王等은 「러시아」의 近代化를 위하여 西歐로 向한 창문을 열어 놓은 셈인데 이로 因하여 1825年의 「12月主義 봉기」가 일어나게 되었고, 특히 귀족 및 지주계급 内部에 속하는 「인테리겐차」층의 불만과 소외의식이 造成되었다고 할 수 있다.

勿論, 「짜르」가 좀더 개방적이었다면 이러한 「인테리겐차」를 体制内로 吸收할 수 있었겠지만 절대주의적 독재체제로 얼어 붙은 「짜르」政權은 西歐思想의 影響을 받은 「인테리겐차」계층을 反体制的 方向으로 나가게끔 만들었으며, 특히 19세기 중엽부터 소외된 사회계층은 크게 擴大되어 나갔다. 이것은 當時의 文学作品에 잘 나타나 있는데, 結局 이러한 反体制的 意識은 革命을 위한 條件을 造成하고자 말았던 것이다.

셋째로, 「러시아」革命이 不可避하게 되었던 原因은 旧秩序下에서

改革을 위한 努力이 모두 失敗로 돌아 갔다는 事實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具體적으로 1861年 노예해방에 따른 地方行政의 改革이 可能하게 되었는데 1864年의 「첸스트보」法에 依하여 行政의 部分的民主化가 약속되었었다. 그러나 1866年 「카라카조브」學生의 「짜르」暗殺企圖로 因하여 이러한 民主化試圖는 다시 反動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1864年의 司法制度改革도 역시 失敗하고 말았다. 그리고 1905年의 革命運動에 따른 「짜르」의 양보와 「뒤마」(Duma)의 회복도 1906年에 또 다시 反動으로 憲政을 實現하려는 모든 努力은 完全히 失敗로 돌아가게 되었다. 따라서 改革이 不可能하게 된 情勢下에서 「짜르」獨裁에 變化를 원하는 모든 反對勢力들은 革命的變化만이 可能하다는 과격주의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이다.

네 번째로, 「러시아」革命은 「러시아」의 農民階級과 「인테리겐차」의 聯合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짜르」獨裁下에서의 「러시아」知識人들은 傳統的인 전제군주독재를 거부하는 同時에 西歐的인 資本主義 價值體系도 同時에 否定했다. 따라서 그들은 「러시아」의 農民이라는 存在를 理想化했으며, 이러한 움직임의 具體的表現으로 「나로드니키」運動은 農民의 해방, 憲政을 위한 改革, 그리고 窮極的으로는 理想主義的 農業社會主義를 指向하고 있었다.

그리고 1902年에 農地의 分配를 要求하는 農民봉기는 드디어 社會革命黨의 창설로 전개되었으며, 憲政이 不許되는 環境에서 그들은 「테로」와 地下組織을 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테러」方法에 依한 反體制運動이 1905年 11月의 봉기로 절정을 이루었는데 이것은 非計劃的이고 非組織的이었기 때문에 失敗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도시의 「푸로레타리아」를 中心으로 하는 社革黨의 「볼셰빅」과 「멘셰빅」이 나오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러시아」의 工業化의 弱點을 指摘하는 必要가 있다.

周知하다 싶이 1890年代에 「러시아」는 相當한 工業化를 이룩했는데, 이것은 國家主導的이었으며, 관료주의적인 方法에 依存했었으므로 「러시아」의 社會的 近代化를 초래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러시아」 工業化에 있어서 外國資本의 比重이 例外的으로 컸었다는 사실도 重要하다고 하겠다.

「짜르」時代 「러시아」 工業構造의 또 하나의 취약점은 工業의 集中化 傾向에서 發見되는데, 가령 美國과 比較하면 1910년에 500名以上을 고용하는 工場이 美國의 경우에는 全工業의 33「퍼센트」에 不過한데 「러시아」의 경우에는 53「퍼센트」를 초과하고 있었다.

그리고 「러시아」의 大 규모 工場들은 地理적으로 「페테스부르크」 「모스크바」, 「도네츠」, 「바쿠」等地에 集中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노동자들의 組織을 촉진시켜 주었으며, 革命運動의 基地를 造成해 준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볼셰비즘」 革命이 可能하게 된 歷史的 要因 가운데 가장 重要한 것은 「짜르」政權의 노동정책의 失敗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바드」大學의 「웨인자드」 교수는 『전제군주정권이 「불셰비즘」의 길을 닦아 주는데 한 가장 효과적인 공권은 온전한 노동조합을 許諾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짜르」政權이 노동임금을 最低水準에 묶어 놓고 노동조건도 最惡인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條件들을 「짜아르」政權의 틀안에서 改善하려는 움직임마저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反體制運動을 不可避하게 만들었다는 뜻이다.

이런 狀況속에서 社會民主主義者들은 이른 바 경제주의운동을 主張하였는데 1902년에 「레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팜프렐」에서 경제주의를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것인데 왜냐하면 만일 경제주의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다면 「레닌」이 主張하던 革命은 不必要해 질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結論적으로 「불셰비즘」의 革命을 可能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짜아르」政權의 性格과 政策에 起因한 것이었으며, 특히 反對 또는 불만세력들을 體制內에 吸收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極端化내지는 음성화했다는 事實이 가장 重要하다고 할 수 있다.

#### (나) 「볼셰비즘」의 「독트린」

「러시아」共産主義는 原来 「나로드니키」運動에서부터 出發했다. 그리고 그 「슬로건」은 「땅과 自由」(Zemlya i Volya)라는 農民運動的인 것이었는데 이것은 사실 「맑스」理論과는 一致하지 않는 것이지만 「맑스」는 同情的이었다. 그 후 1879년에는 「나로드니키」로부터 分黨하여 주로 「테로」行動을 거부하고 煽動과 「푸로파간다」에 置重하게 되었는데 當時 「러시아」革命運動의 失敗原因을 「플레카노프」는 農民의 性格에 있다고 判斷함으로써 「맑시즘」으로 轉向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 「맑시즘」의 出發이었으며, 1883年 이른바 「勞働者解放」(Osvóbozhdenie Truda)이라는 이름아래 最初の 「맑스」主義組織이 생기게 되었다.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러시아」共産主義는 「나로드니키」運動의 失敗에 대한 分析에 있어서 이것이 農民들의 保守性에 起因한 것이라는 判斷에서부터 出發했기 때문에 革命過程에 있어서의 農民의 役割을 否定하고 오로지 都市勞働者들의 役割만을 重要視하는 傾向이 있었다. 따라서 이것은 「맑스」現論을 機械的으로 추종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맑스」理論에 의하면 共産 또는 社会主義革命은 資本主義段階를 거쳐서만 可能하다. 그런데 當時 「러시아」는 아직 封建적인 段階에 있었으므로 우선 「부르조아」革命부터 일어나고 資本主義가 성숙한 以後에야 資本主義의 矛盾때문에 「프로레타리아」革命이 可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플레카노프」가 주장한 점이며, 「레닌」도 1905년에 입장을 바꾸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見解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資本主義的인 工業化過程을 거친 以後에야 社會主義가 可能하다고 社會民主黨의 「멘셰비키」派가 믿은 反面에 「파르부스」와 「트로츠키」는 이른바 「永久革命論」 또는 「並立發展의 法則」을 주장하였다.

「트로츠키」에 依하면 社會主義革命은 個別國家에 局限되는 것이 아니라 全「유럽」的인 歷史的 過程으로서 實際로 資本主義가 가장 취약한 「러시아」에서 始作될 수 있으며, 工業化 過程과 並立發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트로츠키」는 資本主義時期가 지나가도록 기다릴 必要없이 社會主義革命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레닌」은 「멘셰비키」의 理論을 긍정하면서도 行動戰略에 있어서는 「트로츠키」의 積極論을 採択하였으며 特히 1905年의 농민봉기를 목격하고서는 農民의 革命性까지도 自身の 革命「독트린」에 包含시켰던 것이다.

具體적으로 「레닌」과 「볼셰비키」는 이른바 二段階革命理論을 주장했는데 第一段階에는 民主革命을 遂行하기 위하여 「프로레타리아」와 農民이 團合하고 第二段階에는 社會主義革命을 위하여 「프로레타리아」가 主動이 되어 貧農과 규합한다는 것이다.

結論적으로 「볼셰비키」 「독트린」의 特徵은 그것이 窮極的으로는 「맑시슴」에 基礎하고 있으면서 共產革命을 통한 「프로레타리아」 獨裁를 指向하고 있지만 「러시아」社會의 주어진 條件下에서 戰

術的 制約으로 因하여 共產革命을 우선 民主革命으로 위장한다는 點이다. 그리고 特히 「프로레타리아」와 其他 反体制的 勢力의 團合 또는 聯合을 主張한 것은 그 후 다른 모든 共產革命戰略에 重大한 影響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 (ㄷ) 「볼셰빅」革命的 組織的 側面

「레닌」은 무엇보다도 組織의 重要性을 強調하였다.

1902年의 「팜프렐」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레닌」은 勞動組合運動을 통한 勞動者 生活改善을 追求하는 이른바 經濟主義를 배척하고 社會主義革命을 完遂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訓練된 共產黨組織이 가장 重要하다고 主張하고 있다.

具體적으로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가장 信用할 수 있고 經驗이 豊富하며, 단련된 黨員으로 組織된 緻密한 小規模의 中央組織下에, 各地區에는 責任있는 行動隊員을 두고, 革命組織과 가장 嚴格한 秘密속에 연결을 짓는 것」이 무엇보다 重要하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레닌」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고 있다.

「(1) 어떤 革命運動도 연속성을 保存해 주는 指導層의 安定된 組織없이 是 持續될 수 없으며; (2) 革命運動의 基底를 이루며 여기에 參與하는 大衆이 더 많이 흡수되면 될수록 以上과 같은 組織의 必要性은 더욱 절실해지며, 그것은 더욱 堅固해야 하고, (3) 그러한 組織은 革命活動에 전문적으로 從事하는 사람들로 構成되어야 하고; (4) 特히 獨裁國家에서는 革命組織의 構成員을 革

命運動에 專門的으로 從事하며 政治警察과 鬭爭하는 技術을 專門的으로 訓練받은 사람에만 局限할수록 革命組織을 분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 (5) 革命運動에 加담하여 積極的인 活動을 할 수 있는 勞働者와 다른 階級에 속하는 人口의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 이것은 「레닌」의 有名한 「民主主義的 中央集權」이라는 概念으로 發展되지만, 하여튼 「레닌」은 革命의 主体를 小數의 黨으로 定義하고, 黨은 黨內의 小數指導層에 依해서 嚴格하게 영도되어야 한다고 하는 共產黨의 「엘리트」主義를 부르짖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革命主体에 대한 概念은 「트로츠키」가 1904년에 「레닌」을 攻擊하면서 한 말과 같이 「「레닌」에 依하면 黨의 組織이 黨自体를 代置하며, 中央委員會가 組織을 代置하고, 그리고 結局은 獨裁者가 中央委員會를 代置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볼셰비크」의 革命論은 모든 비조직적, 自然發生的 革命運動도 배격하면서 黨을 中心으로 모든 것을 組織하고 이것을 또 다시 黨의 獨裁者가 統制하는 것을 主張하고 있다.

따라서 黨의 組織은 共產革命戰略의 가장 重要한 前提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볼셰비크」戰略

「볼셰비크」共產黨의 革命戰略은 한마디로 말해서 「마키아벨리」的인 現實主義에 立脚한 最大限의 戰術的 伸縮性으로 特徵지워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레닌」과 「볼셰비크」黨員들은 共產主義의 革命的 目的自

체에 있어서는 教條主義的이며 不動的인 姿勢를 取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 그들은 最大限으로 現實을 利用했으며 적어도 方法論에 있어서의 그들의 立場은 매우 可變的인 것이었다.

우선 農民問題만 본다고 하더라도 蘇聯共產主義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플레카노프」는 反「나로드니키」的인 立場에서 古典的 「밖스」理論에 立脚하여 農民階級の 革命性を 否認하였다.

그러나 「레닌」은 1905年の 經驗을 통하여 農民의 動員 可能性을 認定하게 되었으며, 1917年 4月の 「볼셰빅」黨大會에서는 소위 「農業問題에 관한 決議文」을 採択하기에 이르렀는데 여기에서 「볼셰빅」黨은 地主로부터 農土를 약탈할 것을 主張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1917年 4月の 決議文에서 「볼셰빅」은 土地를 小作人에게 無條件 나누어 준다는 「슬로간」에는 到達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위 「農民代表의 「쏘비에트」」 등을 運轉하면서 農業의 集團化를 暗示하고 있다.

그러나 그 후에 「레닌」은 農民들의 봉기를 목격하면서 農土에 대한 小作農들의 慾求를 認識하고, 결국 「農土는 農民에게」라고 하는 單純하고도 最大限으로 煽動的인 口號를 내걸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볼셰빅」은 農業問題에 대한 어떤 原則的인 立場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그러한 問題가 內包하고 있는 反體制的 革命要素만을 最大限으로 利用하는데 全力을 기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소위 「쏘비에트」와 「뒤마」에 관한 「볼셰빅」의 態

度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原来 「볼셰빅」은 自發的인 工場 勞働者 代表들로서 構成된 「쏘비에트」制度에 대하여 否定的인 態度를 取했었으나 그 후에 立場을 바꾸어 오히려 「쏘비에트」 制度를 革命的 目的을 위하여 利用하는 方向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듀마」에 대해서도 原来是 反對했으나 나중에는 이것을 침투하여 조종함으로써 「쏘비에트」와 마찬가지로 利用하게 되었던 것이다. 特히 여기에서 「볼셰빅」戰術의 特徵은 不法的인 革命行動手段과 合法的인 政治行動의 方法을 同時에 使用했다고 하는 点이다.

마지막으로 民族의 問題에 있어서도 「볼셰빅」은 原来 少数民族의 自決權을 否定했지만 역시 少数民族의 不滿도 革命을 위하여 利用할 수 있다는 可能性을 깨닫고 「레닌」은 「러시아」內에서의 民族自決權을 認定하게 됐던 것이다. 그리하여 1913年 党大會에서 公式으로 民族自決權을 支持함으로써 少数民族의 不滿을 「볼셰빅」戰略의 要素로 흡수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 (㉑) 結 論

以上에서의 分析을 結論的으로 要約한다면 蘇聯共產革命의 가장 本質的인 要因들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蘇聯共產革命은 「차아르」 「러시아」의 歷史的 遺産을 背景으로 하고 있다. 特히 「차아르」政權의 가장 決定的인 失策은 既存秩序를 維持하면서 漸進的으로 改革할 수 있는 可能性을 許容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批判的 勢力들을 음성화하고 絶对化 하는 結果를 招來했다는 点이다.

그러니까 窮極的으로 改革이 不可能했기 때문에 革命이 不可避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共產革命은 「엘리트」的인 共產黨의 組織과 訓練을 기초로 하고 있다. 모든 決定過程은 中央集權化된 黨組織을 통해서만 可能했으며, 이것은 強力한 革命主体勢力으로 登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셋째로 蘇聯共產革命을 成功的으로 만든 또 하나의 要因은 黨의 「독트린」의 不斷한 現實適應이라고 할 수 있다. 「레닌」은 어떤 原則的인 立場을 固守하지 않고 共產革命을 위해서는 어떠한 方法과 手段도 가리지 않는다는 「마키아벨리」的인 態度를 取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볼셰빅」戰略의 特徵은 伸縮性和 現實適應性에 있었는데 具體的으로 이것은 「러시아」社會에 있어서의 모든 不平과 不滿의 要素를 最大限으로 利用하는 것을 意味한다. 다시 말하면 共產主義者들은 必要에 따라서는 農民의 편에 서는 印象을 주기도 하고 또는 少數民族의 편에 서기도 하는 印象을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물론 그들의 真正한 目的은 「프로레타리아」 獨裁를 이룩하는 것이었으며 결코 民主主義를 實現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民主主義를 指向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은 그들의 戰略的인 行爲였다고 解釋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戰略的 底意는 어디까지나 모든 否定的 또는 批判的 勢力을 利用하려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곧 蘇聯共產革命戰略의 本質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中共共產革命戰略

中共共產革命은 當時 中國의 歷史的, 社會的 背景을 이용한 戰略, 즉 半植民, 半封建的인 社會的 背景속에서 民族主義運動을 부각시킴으로써 成功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것은 毛沢東의 표현을 빌리면 「막스-레닌」主義의 보편적인 真理와 中國革命의 具體的인 實踐을 종합한 戰略이라고 中共共產革命運動을 集約할 수도 있으며, 또한 中國共產主義運動은 民族主義的 感情에 호소함으로써 當時 中國의 支配的인 社會의 構造的 特徵이라고 할 수 있는 半植民 半封建狀態로부터의 탈출구를 제공한 運動이었다는 事實에서 그 궁극적인 成功要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共產革命運動이 등장하던 當時 中國의 歷史的, 社會的인 背景과 革命戰略을 보다 자세히 分析함으로써 中共共產革命의 成功要因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려고 한다.

### (一) 歷史的 背景

當時의 歷史的 社會背景으로는 半植民, 半封建的 狀態가 가장 뚜렷한 社會의 構造的인 特徵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다.

#### ① 半植民的 狀態

中國은 1840 年の 阿片戰爭 以後 先進資本主義列強의 半植民地狀態에 빠져 있었는데 具體的으로 다음과 같은 事實들이 지적될 수 있다.

## ㉔ 領土의 喪失

中國은 阿片戰爭의 失敗로 因하여 1824年 英國에 「香港」을 1882년에는 「포르투갈」에 「마카오」를 그리고 1895년에는 中日戰爭의 失敗로 因하여 日本에게 「대만」을 탈취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1898년에는 威海衛, 九龍半島를 英國에 의해서, 膠州灣을 獨逸에 의해서, 1899년에는 廣州灣을 佛蘭西에, 다시 1905년에는 旅順·大連을 日本에 의해서 各各 99年間の 租借地라는 名目으로 탈취당하였다.

## ㉕ 主權의 喪失

1820년부터 中國政府는 關稅率을 自主的으로 決定하지 못하고 外國政府와의 協定에 依해서 決定하게 되었고 稅關管理도 外國人の 手中에 들어감으로써 關稅自主權을 喪失했다.

또 1843년에는 英國人이 治外法權을 획득하게 되면서부터 領事裁判權의 喪失을 가져왔으며 1845년에는 英國人이 上海에 租界를 설치하여 租界內에는 中國의 主權이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그 후 橫口, 天津, 牛莊, 營口, 鎮江, 杭州, 蘇州, 福州, 廣州 등에 英, 佛, 日本, 獨逸, 「러시아」의 租界가 설치되어 마침내 中國의 主要都市가 모두 外國人の 管理下에 들어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1895年 日本이 시작하여 中國의 現代式 工業은 거의 外國人の 經營下에 들어있었고, 鐵道의 부설權, 체광權도 1898년부터 外國人の 手中에 들어가고 말았다.

以外에도, 國內航行權, 外國軍주둔權 등의 權限이 外國人の 手中에

들어간 데다가 1840년부터 1900년에 이르는 60년간의 列強과의 五次交戰에서 失敗한 結果 總賠償金이 九億元에 달했으며, 軍閥亂戰의 혼란속에서 統一政府를 수립하지 못한채 半植民狀態에서 中國은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 ② 半封建的 狀態

中國은 또 다른 한편으로 半封建的인 後進社會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다. 先進列強의 침략근거지인 主要都市에서는 차츰 資本主義 近代文明이 침투하기 시작하여 前近代的인 封建體制가 무너지는 徵候가 보이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封建體制의 뿌리는 남아 있어 半封建體制의 狀態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半封建的 狀態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中國의 發展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封建主義 反對의 新文化運動은 當時에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이 新文化運動에 가장 크게 공헌한 人物은 후일에 中國共産黨의 初代書記長으로 추대된 陳獨秀였다.

1917年 불란서의 유학에서 돌아온 蔡元培가 北京大學 總長에 취임하자 그는 同大學 文科部長으로 陳獨秀를 초빙하고 少壯新人들을 모아, 北京大學은 新文化運動의 中心이 되고 機關誌가 「新青年」이었다. 「新青年」은 李大釗의 主動으로 1918年 10月부터는 「마스-레닌」主義의 선전과 해설을 담당하는 共産主義運動의 機關誌로 변모하였으나 그 후에도 여전히 封建主義 反對의 近代化運動을 中心課題의 하나로 삼고 있었다.

따라서 初期의 共産主義運動은 帝國主義反對의 民族主義的인 性格과 封建主義反對의 近代化運動이 혼합된 形態의 運動이었다. 이렇

게 불매 知識層의 호응을 받기 좋은 社会的 背景속에서 共產主義運動은 싹트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反帝, 反封建運動은 이윽고 1919年 5月 4日에 일어난 이른바 「五四運動」을 계기로하여 폭발점에 도달하였다.

1914年 第一次 世界大戰이 발발하자 日本은 中國의 「원세계」를 위협하여 日本人의 特殊利益을 얻어냈다. 또한 1919年 1月 巴里平和會議에서 中國代表는 中國에서 얻은 列強의 諸權益에 대하여

- ㉑ 中國에 設定된 세력범위의 포기
- ㉒ 駐中國 各國의 軍대 철퇴
- ㉓ 各國이 經營하는 우편·전보사업의 폐지
- ㉔ 領事裁判權의 取消
- ㉕ 租借地의 반환
- ㉖ 租界의 반환
- ㉗ 關稅自主權의 承認

등의 七個項目의 希望條件을 提出하고 同時에 日本이 一次大戰中에 얻은 各種 權益의 반환을 要求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要求는 묵살되고 獨逸의 諸權益이 日本에 의해서 인계되기로 決定되었다.

이러한 內容이 中國에 報道되자 北京大學을 中心으로 學生 五千名이 6月 4日 一大示威行進을 감행하였으며 이러한 運動은 全國에 계속 확대되고 6月 3日 以後에는 大衆運動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폭발적인 反帝·反封建의 치열한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것

이 中國의 共產黨이었다.

## (ㄴ) 共產革命의 戰略

앞서 中國共產黨은 反封建 反植民 反帝國主義運動 즉 新文化 내지 近代化運動과 民族意識이 고조된 상황속에서 탄생함으로써 國民의 호응과 공감을 받을 수 있는 社會的 背景을 지적했다. 지금부터는 그러한 社會的 狀況속에서 탄생한 共產黨 특히 毛沢東의 革命戰略에 關해서 分析하려고 한다.

### (A) 軍事的 戰略

1928年 秋收暴動의 실패후에 井崗山으로 敗走한 毛는 「敵을 알고 我力을 알면 百戰을 해도 危殆롭지 않다」는 孫子兵法의 基本原理에서 힌트를 얻어 遊擊戰術을 창안하여 보다 강력한 장개석의 군대에 대항할 수 있는 四大原則을 確立했는데 그것은

- ① 敵進我退
- ② 敵擾我擾
- ③ 敵疲我打
- ④ 敵退我追

로 集約된다. 그러나 이러한 毛의 유격전술은 軍事作戰技術에 그치지 않고 政治工作까지를 포함한다. 그는 中國의 具體的 現實의 여건아래에서는 農民이 主動이 되는 農民革命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동원한 「人民軍」의 組織에 착수했다. 즉 그는 中國共產革命은 「人民戰爭」에 의해서만 可能하다고 믿

고, 그러한 戰略만이 직업적인 장개석의 군대와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여 「코민테른」의 입장과는 다른 農民主体의 革命으로 方向을 잡았던 것이다. 그의 「水魚之交」의 本質的 思考의 바탕 속에서 탄생한 革命의 原則은 다음의 5個項으로 区分 說明될 수 있다.

### (1) 人民의 動員

1934年 1月 27日 毛는 「革命戰爭은 大衆의 戰爭이다. 그것은 오직 大衆動員과 大衆에 의존함으로써만 수행될 수 있다」고 천명했다. 1939年 5月 4日 그는 「지난 50여년간의 革命의 교훈은 國民的 大衆을 일으키는 것이다. 中國人民의 90%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의 광범위한 大衆을 動員함으로써만 우리는 帝國主義와 封建主義를 타도할 수 있다」고 거듭 천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軍事的인 유격전은 본질적으로 大衆으로부터 나오고 大衆에 의해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大衆의 동정과 협력없이 는 存在할 수도 발전할 수도 없는 것이다.

毛는 國民黨下에 있는 군대의 기술적 우월성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은 全的으로 國民黨에 적대적인 人民의 動員뿐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全人民을 動員한다는 것은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大衆의 어느 重要한 부분도 소외시키지 않고 大衆의 지지를 받기 위해 革命政黨이 필요로 했던 것은 理念的인 호소였다. 中國共產黨은 2個의 그러한 호소를 시험했었다.

하나는 가난한 南·中部의 中國農民들에게 土地改革을 약속하고

또 다른 하나는 1937年以後 日本의 침략에 저항하는데 있어서 中国의 民族主義的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었다. 처음의 호소는 다소 호의적인 반응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크게 成功하지 못했으나 두번째의 民族主義的 감정에 대한 호소는 成功的이었다.

### (2) 動員된 人民의 組織

人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한 共產黨은 이제 人民들의 組織에 착수해야만 했다. 毛의 戰略에 의하면 組織에 의해서 動員은 완수된다. 黨과 軍將校들은 大衆에게 政治的 참여감을 줄뿐만 아니라 軍事的인 지원도 제공하는 人民團으로 人民들을 組織했다. 黨組織의 主要機能中的 하나는 人民들에게 實質的인 政治教育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組織의 마지막 단계는 기지를 만드는 것이었다. 기지들이 확대되고 견고해짐에 따라서 이것은 共產軍에게, 음식, 피난처, 훈련장과 人力의 원천을 제공하는 유격전의 下部構造 (infra-structure)가 되었다.

### (3) 黨主導 大革命軍隊의 創設

大衆運動을 組織하고 謀反의 下部構造를 설립한 共產黨은 革命軍을 충원하기 시작했다. 훈련은 軍律을 매우 강조했으며 現地人民들과의 우호적인 關係가 매우 강조되었다. 黨의 軍隊는 客觀적으로 보다 強力한 敵과 싸워야했기 때문에 유격전술을 적용했으며 軍事的으로나 병참의 면에 있어서 人民들의 도움과 협조를 받아야만 했다. 人民들은 정보, 노동력, 군대의 충원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정규군이 기지밖에서 싸울 때에는 기지를 방어하기도 했었다.

유격대원과 人民들간의 긴밀한 협조를 確保하여 「軍民一致」를 성취하기 위해서 毛는 그의 三大規律과 八項注意를 창안하고 이것을 對民工作의 基本原則으로 삼았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三大規律 1. 命令絶対服從

2. 民弊嚴禁

3. 沒收한 敵財産 提出

八項注意 1. 말씨의 정중

2. 모든 물건은 정당한 값으로 살것

3. 빌린 물건은 돌려줄것

4. 반드시 배상할 것

5. 때리거나 욕하지 말것

6. 農産物을 손상하지 말것

7. 民間부녀자에게 무례한 言行을 금할 것

8. 포로를 학대하지 말것

以上の 三大規律과 八項注意는 1928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人民解放軍은 1947年 10月 10日에 다시 이들의 시행을 발표했다.

#### (4) 遊擊戰術

遊擊戰術은 앞서 4가지의 原則으로 集約한바 있는데 이 戰術의 特徵은 첫째로 弱한 勢力이 強한 勢力을 퇴패시킬 수 있는 전투상황을 만들고 둘째로 이 戰術의 수행은 人民遊擊隊의 上部構造의 기능에 의존한다는 点이다. 相對的으로 弱한 共產軍이 敵을 사전에 탐지하여 매복병을 통해서 時間과 장소를 자유자재로

선택해가면서 싸우는 戰術이라고 要約할 수 있을 것 같다.

#### (5) 持久戰의 단계

革命戰略이 成功하려면 持久戰을 해야 한다는 것이 毛의 생각이었다. 遊擊戰術은 敵을 弱화시키는 目的을 수행하고, 戰爭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陣地戰( Positional Warfare )을 수행하여 革命을 완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최후의 단계가 도달할 때 까지는 持久戰을 해야 한다는 것이 毛의 판단이었다.

以上과 같은 戰略만 가지고서는 共產黨은 人民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없었다. 그런데 1931年 9月 18日 日本軍의 만주침략은 毛의 革命戰略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 當時 毛는 長征으로 인하여 허탈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黨員들도 絶望狀態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毛는 絶望狀態의 黨員들을 고무하고 非共產界 知識人, 大衆의 호응과 동정을 받을 수 있는 大義名分을 위해 1935年 12月 27日 「抗日民族統一戰線」을 내세우게 되었다.

#### (B) 民族統一戰線의 戰略

1931年 만주사변을 始發點으로 하는 日本帝國主義의 中國侵略은 실로 眼下無人이었으므로 上海의 學生들을 비롯한 中國 知識層의 排日感情・抗日感情은 惡化될대로 惡化된 상태였다. 毛는 이러한 抗日感情을 十分利用해서 中國國民으로서는 누구도 拒絶할 수 없는 「舉國一致・抗日鬪爭」의 大義名分을 내걸고 中國國民黨에 對해서 休戰을 提議하면서 共產黨의 再出發을 기도했다. 장개석이 이런 제의를 거절하고 共產黨을 토벌하려 했으나 1936年 2月 12日

에 발생한 「西安事件」의 결과로 因하여 1937年 2月에는 国共合作이 正式으로 체결되게 되었다. 共産党은 여기서부터 毛의 領導下에 再生 發展에 成功하여 1941년에는 80만의 黨員을 가진 大政黨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 (C) 新民主主義 戰略

中国共産党的 革命戰略으로 내놓을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으니 그것은 毛가 1940年 1月に 발표한 소위 「新民主主義論」이다.

毛는 共産主義가 最高의 강령이고 新民主主義는 최저의 강령이라고 주장하면서 半封建, 半植民狀態를 청산하고 새로운 中国의 건설을 역설했는데 구체적인 政策으로 經濟政策과 文化政策을 들수 있겠다.

(1) 經濟政策 ..... ① 節制資本

② 平均地權

(2) 文化政策 ..... ① 民族的

② 科學的

③ 大衆的

毛는 經濟政策을 내 걸고 少数人의 独占을 용인하지 않으며 完全한 社會主義도 資本主義도 아닌 中間的 混合體制를 주장하는 반면 封建體制文化(孔孟子文化)와 資本主義文化를 배격하고 新文化를 주장했다.

以上과 같은 事事的 戰略, 民族統一戰線戰略 그리고 新民主主義戰略등을 활용하면서 확고한 大政黨으로 共産黨이 발전되었는데

1941年の太平洋戦争の 발발은 毛에게 決定的인 또 하나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었다. 즉 美国의 対中国基本政策을 이용하여, 주은래는 장개석의 对共产党軍事行動을 막아버리는데 성공했으며, 日本의 항복과 더불어 시작된 内戰에서 共产党은 장개석의 軍대를 격파하여 1949年 10月 1日에 「中華人民共和國」을 선포하였던 것이다.

### (二) 結 論

지금까지 中国共産革命의 歴史的 背景과 共産革命戰略을 설명했다. 毛는 유격 전술, 民族統一戰線, 新民主主義 등의 戰略을 구사하면서 그의 혁명을 완수하게 되었던 것이지만 당시의 歴史的 社会的 背景의 重要性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中国에서 共産革命이 成功할 수 있었던 要因은 大体로 다음과 같이 集約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當時의 中国에서 帝國主義的 列強들의 야욕은 中國民의 反帝國主義的 感情을 일으키고 그럼으로써 現實否定的 態度를 자극했다.

둘째, 日本의 만주침략은 中國民의 民族主義的 感情에 불을 질렀으며 知識層과 젊은이들에게 集團的 抗日鬪爭의 必要性을 認識시켰다.

셋째, 毛의 유격전술은 軍民一致의 政治工作으로 因하여 병참 같은 軍活動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편리한 鬪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네째, 毛를 再生시킨 「西安事件」의 발생이라는 우연적 사건이

있었다.

다섯째, 共産革命을 「막스-레닌」주의처럼 단지 노동자에만 의존하지 않고 同國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農民을 中心으로 한 農民革命으로 革命의 方向을 전환시킨 現實的 감각의 소유자로서의 毛의 認識能力이 지적될 수 있다.

여섯째, 中日戰爭의 발발

일곱째, 太平洋戰爭의 발발

여덟째, 장개석으로 하여금 對日戰爭에 몰두케 하고, 對共産軍事作戰을 봉쇄한 周恩래의 외교적 수완이 있었다.

以外에도 心理作戰, 포로를 共産分子로 전환시킬 수 있었던 사려 깊은 工作등의 많은 요인들이 共産革命의 成功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여러가지의 客觀的 條件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客觀的 條件이 저절로 革命을 成功시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毛沢東의 政治的 지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毛의 現實主義的인 政治戰略이 없었더라면 中國의 共産革命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毛가 노동자 중심의 革命戰略의 「막스-레닌」주의를 버리고 農民革命戰略으로 전화하기 이전까지 中國共産黨의 活動과 처지를 생각해 보면 더욱 선명해진다.

따라서 中國共産革命의 成功은 中國에 「막스-레닌」主義를 그대로 식목하지 않고 中國의 現實的 여건을 올바르게 認識하고 이에 적합한 方向 전환, 대응책의 제시를 할 수 있었던 毛의 現實主義的 감각과 자세, 그리고 革命家로서 그리고 政治家로서의 毛의 자질과 지혜가 무엇보다도 重要한 成功의 要因이었다고 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 (3) 「체코」共産「쿠데타」戰略

蘇聯과 中國의 共産化過程은 本質的으로 革命的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1948年2月 「체코슬로바키아」에서 共産主義者들이 政權을 独占한 過程은 「쿠데타」에 依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共産主義者들의 戰略의 多樣性을 말해 준다. 그러나 「체코」共産「쿠데타」 戰略의 成功要因을 자세히 分析해 보면 역시 蘇聯과 中國共産革命過程에서 볼 수 있는 몇가지 根本的인 共通性이 發見된다. 特히 「체코슬로바키아」의 共産「쿠데타」에 있어서도 가장 重要했던, 共産戰略은 合法的 政治競爭方法과 不法的 鬭爭方式을 同時에 使用하고 있다는 事實과 非共産勢力에 침투하여 五列을 조직함으로써 反共勢力의 分裂을 造成했다고 하는 點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 「체코」共産「쿠데타」의 戰略을 分析하기 위하여 共産「쿠데타」의 過程 자체를 비교적 상세하게 조사해 보고 그 成功要因을 体系的으로 分析하고자 한다.

#### (ㄱ) 「쿠데타」의 過程

周知하다 싶이 「체코슬로바키아」는 第二次大戰의 종식과 더불어 蘇聯軍에 依하여 점령되었으나, 戰前의 民主主義的 體制와 西歐 指向의 性格을 完全히 無視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自由로운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 特히 蘇聯軍의 撤収以後에는 自由로운 選舉를 통하여 共産黨이 이끄는 聯立內閣이 成立되었으며 1948年2月の 「쿠데타」가 일어나기 바로 直前까지만 하더라도

「프라하」市에서는 西歐의 新聞들과 잡지를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表面的으로 이처럼 평온한 분위기속에서도 共產主義者들은 이미 政權의 独占을 위한 共產化作業을 조직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특히 當時 內務相을 담당하고 있던 「노섹」(Nosek)은 「체코」 경찰조직을 完全히 共產化하는 作業을 進行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결국 경찰의 共產化作業이 오히려 「쿠데타」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이로니칼」한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쿠데타」를 위한 條件의 造成은 1947年11月 「체코」議會에서 民族社会黨議員들이 共產黨員이며 內務相이던 「노섹」을 경찰의 共產化를 피하고 있다고 비난한데서 시작되었다.

1948年2月13日에는 「보헤미아」州의 경찰국장이 內務相의 허락을 받고 8名の 非共產 경찰 지역책임자를 파면시켰다는 事實을 內閣이 알게되어 共產黨에 속하는 內閣委員의 反對에도 불구하고 이들 非共產계 경찰관들을 복직시키라고 多數決로 內閣이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어 2月16日에는 「체코」駐在 前蘇聯大使였으며 當時 蘇聯 外務副相이었던 「조린」(Valerin Alexandrovitch Zorin)이 「프라하」에 도착했으며 同時에 駐「체코」 英國大使 「스타인하트」(Lawrence Steinhardt)도 「프라하」에 도착하게 되었다.

「조린」은 「프라하」에 도착하여 곧 政治的活動에 들어 갔는데

「체코」共産黨員들과 접촉하면서 「쿠데타」를 배후에서 조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反面에 「스타인하트」英大使는 이미 몇個月前에 「체코」의 非共産主義者들에게 西方으로 부터 政治的 또는 軍事的 뒷받침은 기대할 수 없다고 忠告함으로써 「체코」內政에 대한 蘇聯의 간섭에 對應하지 않겠다는 立場을 取하였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체코」內閣의 非共産主義委員 12名은 2月 20日 「베네스」(Benes)大統領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노섹」內務相이 內閣의 決定을 따르지 않는 限 더 계속 內閣의 구실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12名은 「체코」民族社会党, 基督教国民党, 「슬로박」民主党에 屬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사표가 수리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가정하에 共産黨員인 「노섹」內務相에 대하여 壓力을 加하려는 것이 戰略的目的이었다.

共産主義者들은 이에 對하여 즉각적으로 反應을 나타냈는데, 그들은 오히려 反共政黨들이 合法的인 政府를 전복할 음모를 하고 있었다고 비난하였다. 특히 當時에 共産主義者들이 「라디오」 등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들의 허위선전은 反共政黨들을 궁지에 몰아 넣을수 있었던 것이다.

이어서 內務相 「노섹」은 民族社会党 지도자들이 英國과 美國에 국가기밀을 팔았다고 허위발표했다.

그리고 바로 같은 날에 共産黨員이며 首相인 「고트발트」(Gottwald)는 「베네스」大統領에 壓力을 加하기 始作했는데 「고트발트」는 「人民民主主義와 蘇聯에 友好的인」 이른바

「民族戰線」을 받아들일 것을 要求했다. 그러나 「베네스」大統領은 어디까지 議會民主主義를 준수해야 한다는 立場을 굽히지 않고 非共産계 各료들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베네스」大統領이 「고트발트」首相의 要求를 거절하자 그날 저녁부터 共産主義者들은 行動을 開始하였는데 경찰과 軍중과 소위 行動委員會와 노동자民兵隊等を 政治行動의 중요한 수단으로 利用하였다.

우선 共産主義者 內相下에 完全히 政治化된 경찰은 방송국, 무전국 등의 건물들을 "보호한다는 핑계를 내세우고 실제로 점령함으로써 反共勢力의 行動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또한 共産主義者들은 주로 공장지역에 이미 조직되어 있는 "軍중"을 動員해 가지고 「트럭」에 실어 「프라하」에 운송해 왔으며, 특히 이미 共産五列로 비밀조직되어 있던 行動委員會를 各급소집하여 모든 都市와 농촌, 공장, 사무실, 「클럽」 및 其他 조직들을 「콘트롤」하게끔 하였다. 그리고 노동자 民兵隊員들은 비밀리에 무장하고 「프라하」郊外에 집결하여 必要한 순간에 介入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다.

다음 2月21日에는 이미 동원된 軍중들이 共産黨의 지시에 따라 「프라하」시청앞에서 示威를 하고 「고트발트」는 反共主義者들이 反國家的行動을 음모하고 있었다고 허위연설을 했는데 여기에서 소위 市民代表들은 「베네스」大統領과 面接을 要求하고 「베네스」大統領이 「고트발트」를 지지할 것과 反共關係들의 사표를 수리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共産側의 壓力에도 불구하고 「베네스」大統領은 議會民主主義 重要性을 再

強調하고 合法的節次에 어긋나는 어떠한 要求도 받아 드릴수 없음을 分明히 하였다.

2月 22日은 日曜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共產五列에 의하여 조직된 軍중시위는, 계속되었으며, 條聯은 「모스크바」放送을 통하여 「체코」 事態에 對해서 共產黨의 立場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체코」경찰은 司法界人事를 포함한 反共主義者들을 「비밀리에」 체포했으며 소위 行動委員會는 모든 조직에서 反共勢力을 숙청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共產主義者들의 不法的인 行動을 방지하지 못한 것은 反共勢力이 조직되어 있지 못했다는 事實이 가장 重要한 原因이었다고 할 수 있다.

2月 23日에는 아직 反共閣僚들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行動委員會隊員들이 物量的으로 그들이 政府事務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벨딩」들을 봉쇄하였다.

그리고 民族社會黨이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증거 文書를 發見했다고 하는 「노석」의 허위발표와 함께 경찰은 民社黨本部를 강점하고 同黨의 事務局長을 체포했다.

이처럼 狀況이 惡化되자 12名의 反共閣僚들은 「베네스」大統領을 面接하고 서로 共產主義者들의 壓力에 굴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프라하」市 거리에서는 共產主義者들의 行動에 분개한 學生들이 「데모」를 벌렸으나 역시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効果적이지 못하였다.

2月25日是 決定的인 날이었다.

「베네스」大統領은 「고트발트」에게 議會民主主義를 준수할것을 호소하는 書翰을 발송했는데 「고트발트」는 이에 대한 回信에서 사표를 제출한 閣僚들을 비난하고 새로운 聯立內閣을 구성할 것을 提議하였다. 그런데 「고트발트」는 眞正한 意味의 聯立內閣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聯立內閣에 포함될 各政党的 代表는 各己政党자체가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고트발트」自身이 政党들과의 協議나 同意없이 直接選定한다는 내용의 案을 제시한 것이다.

물론 「고트발트」는 各政党를 이미 침투하고 있던 共產五列들을 소위 聯立內閣에 포함시킴으로써 表面的으로 憲政的인 節次를 밟는 인상을 유지하면서 내용적으로는 共產獨裁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同日 午後 「프라하」市街에서는 「베네스」大統領을 지지하는 反共學生들과 共產党的 지령에 따라 움직이기는 경찰사이에 충돌이 있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共產主義者들과 非共產民主勢力間에 市民戰爭이 일어나기 一步直前に 다다른 것 같았다.

「베네스」大統領은 「체코」의 內亂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국 共產主義者들의 壓力에 굴복하고 말았다. 「고트발트」는 예정했던대로 聯立政府라는 形式을 유지하면서 完全한 共產獨裁體制를 구성하였으며, 「체코슬로바키아」는 東歐에 있어서 唯一한 民主主義 전통을 상실하고 蘇聯의 一個 위성국가로 轉落하고 말았던 것이다.

## (ㄴ) 「쿠데타」成功의 要因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共產「쿠데타」의 成功要因은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分析할수 있다.

첫째로 「체코」共產「쿠데타」의 背後에는 蘇聯이라는 存在가 있었다는 事實을 잊어서는 안된다.

第二次大戰의 종식과 함께 蘇聯은 「체코」에 對한 占領政策을 통하여 「체코」의 右傾可能性을 事前에 막아 버렸는데 이것은 地政學的으로 「체코」는 蘇聯에게 거의 絶對的인 重要性을 갖고 있다는 事實에 起因한 것이다. 흔히 「체코슬로바키아」가 蘇聯의 壓力에 完全히 굴복하고 共產化되는데 비하여 「핀란드」는 어느정도 自主性을 유지할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핀란드」지도자들의 意志가 強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實은 地政學的으로 「체코슬로바키아」는 「핀란드」보다 蘇聯에게 훨씬 더 重要하기 때문에 前者에 對한 蘇聯의 壓力은 後者에 對한 壓力보다 그만큼 더 強한 것이었다고 할수 있다.

具體적으로 「체코」에서의 「쿠데타」가 進行되고 있던 決定的인 時期에 上記한 바와 같이 蘇聯은 「조린」副外相을 「프라하」에 駐在시켰는데, 「조린」은 「체코」지도자들을 個別的으로 접촉하면서 「說得」하는 作業을 벌리고 있었다. 그리고 「모스크바」放送은 「체코」共產主義者들을 全적으로 지지한다는 위협을 계속 방송하고 있었다. 따라서 當時 「체코」의 지도자들은 蘇聯軍이 「프라하」를 直接 침범할 可能性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아이로니칼」하게도 「체코」共產主義자체가 自由化를 試圖했을 때에 蘇聯軍

은 1968年 여름 드디어 「프라하」를 침범하고자 말았다)

둘째로 「체코」共産「쿠데타」가 성공한 또 하나의 原因은 西方側의 政策(차라리 政策의 不在라고 하는 것이 더욱 正確할런지 모르지만)에 있었다고 할수 있다.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駐「프라하」美國大使 「스타인하트」는 1948年 2月의 危機가 발생하기 以前부터 「체코」의 非共産지도자들에게 西方側은 決코 그들을 政治的으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立場을 分明히 밝혀 두었었다. 그리고 실제로 西方側은 萬一 「체코」共産化를 적극적으로 방지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軍事的行動을 取할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었다. 二次大戰의 종식에 따라 美國은 「유럽」으로 부터 地上軍의 철수를 서둘렀으며 아직 北大西洋同盟은 조직되기 以前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1938年 「뮌헨」會議에서 西方國家들은 「나치」獨逸의 壓力에 못이겨 「체코」의 利益을 희생시켰던 기억때문에 「체코」國民은 西方側에 대하여 不信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도 事實이다. 何如튼 「체코」가 共産化되는데는 西方政策의 責任도 相当하다는 事實은 否認할 수 없다고 본다.

세째로 「체코」社會자체에 있어서의 反共勢力의 취약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체코」反共勢力은 조직이 없었다는 事實이 決定的인 敗北의 原因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미리부터 비밀리에 세밀하게 조직된 共産主義者들과 그들의 지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五列에 대항하여 싸울수 있는 조직된 反共勢力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체코」反共勢力은 「체코」國民을 政治적으로 動員할 수 있는 理想的 「독트린」이 없었다는 事實도 그들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순한 反共思想만 가지고는 「체코」社會를 적극적으로 動員 및 糾合할 수 있는 理念과 役割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議會民主主義思想이라고 하는 것은 政治形態에 관한 것으로서 具體적으로 社會經濟秩序에 관한 비존을 提示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反共勢力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理想主義的 「독트린」이 결여되었던 것이다.

反共勢力의 또 하나의 決定的인 취약점은 右翼勢力가운데 第二次大戰時에 「나치」獨逸과 협조한 要素가 있었기 때문에 反民族的이라는 인상을 完全히 克服하지 못했다는 事實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체코」反共勢力은 民族主義를 代表할 수 있는 位置를 차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蘇聯의 役割, 西方側의 態度 그리고 「체코」反共勢力의 취약성과 함께 「체코」共産化에 있어서 가장 重要했던 要因은 「체코」共産主義者들의 치밀한 戰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分析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체코」共産主義者들은 극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共産化戰略을 적용함으로써 共産獨裁를 수립하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 (나) 「체코」共産化戰略

「체코」共産主義者들은 처음부터 政權의 獨占을 계획하고 있었음이 分明하다. 그러나 그들은 決定的인 순간이 오기까지 기다리면서 그러한 순간에 효과적으로 行動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체코」共産主義者들은 革命이라기 보다 「쿠데타」라고 할수 있는 方法에 依하여 權力을 장악했다는 點에서 蘇聯이나 中共의 경우와는 差異가 있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한가지 基本的인 共通點은 「체코」共産主義者들도 「組織」의 重要性을 잊지 않았다는 點이다. 따라서 「체코」共産主義者들의 戰略도 그러한 組織의 活用方法으로 理解되어야 하며, 항상 그러한 조직을 前提하고 있었다는 事實을 잊어서는 안된다.

인제 「체코」共産主義者들의 「쿠데타」戰略을 分析해 보면 大體로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의 重要的 側面을 지적할 수가 있다.

첫째로 戰後 聯立內閣을 구성했을때 共産主義者들은 戰略적으로 重要的 부서들을 차지했는데, 特히 경찰을 「콘트롤」하는 內務省과 「라디오」等 「매스 콤」을 움직일수 있는 弘報省, 그리고 農民들을 움직일수 있는 農業省等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미리부터 共産「쿠데타」를 위하여 계획적으로 戰略的位置를 차지한 것이 라고 할수 있다.

둘째로 共産主義者들은 地方行政을 그들의 손안에 넣기 위하여 이른바 國家委員會制度에 침투하여 이것을 完全히 「콘트롤」할 수 있게끔 했다. 特히 地方行政은 國民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조직임으로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政治적으로 重要的 戰略役割을 할수 있는데, 共産主義者들은 이러한 事實을 적극적으로 利用했던 것이다.

셋째로 「체코」共産主義者들은 合理性을 假裝하고 民主的 方法을

긍정하는 인상을 주면서 노동조합, 여성단체, 청년조직, 농민위원회 등의 모든 社会集團에 침투하여 共產化의 道具로 利用하였는데 심지어는 反共政堂에 까지도 침투함으로써 「체코」에는 五列이 없는 조직이나 단체가 없을 정도였다. 앞서 「쿠데타」의 過程을 分析함으로써 이미 밝혀진바와 같이 共產主義者들은 行動을 取해야 할 決定的인 순간이 도달했을때에 그들이 침투해 있던 조직들에서 反共勢力을 숙청함으로써 完全共產化하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方法은 「체코」 共產主義者들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共產主義者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一般的으로 使用하는 手法이다.

네째로 政治的表面에서 共產主義者들은 다른 모든 政堂을 포함하는 이른바 民族戰線을 구성할 것을 主張했는데, 실제로 그러한 聯合體制가 형성되었을때 共產主義者들은 여기에 침투하여 赤化해 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共產黨이 聯合戰線에 흡수된것이 아니라 逆으로 聯合戰線이 共產勢力에 흡수되고 만 셈이다. 이것 역시 「체코」뿐만 아니라 共產主義者들의 一般的인 手法이라고 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체코」 共產主義者들은 한편으로는 비밀리에 非共產團體들에 침투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合法的手段을 使用하여 中產層을 弱化하는 戰略을 적용했다. 가령 그들은 中產層의 經濟權을 立法的으로 박탈함으로써 「체코」 社会構造에 있어서 共產主義에 對항할수 있는 勢力을 事前에 除去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이와같이 結論적으로 「체코」 共產主義者들의 「쿠데타」 戰略은 共產勢力의 組織化, 戰略的位置의 정령, 社会团体의 침투, 民族戰線의 逆利用, 그리고 反共勢力의 除去等의 方法을 적극적으로 使用했음을 알 수 있다.

#### (4) 共産革命戰略의 性格

以上에서 우리는 成功的으로 적용된 共産化戰略의 3個의 例를 分析하였거니와 이제 共産主義者들의 革命戰略의 一般的 性格을 規定한다면 大體로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共産主義者들은 特定社會에 있어서의 不条理와 脆弱點을 最大限으로 利用하여 既存秩序에 대한 社會的不滿의 要素를 擴大하고 動員하는 것을 그들의 革命戰略의 基本原理로 삼고 있다.

古典的 「맑스」理論에 있어서는 그러한 社會的 不滿階層은 반드시 無産都市 「프로레타리아」로 認識되고 있지만 實際로 行動의 次元에서 共産主義者들은 이러한 古典的 「맑스」理論에 구애됨이 없이 特定한 社會의 特有한 條件과 情勢에 따라 무슨 社會階層이던 간에 既存秩序에 대하여 否定的인 態度를 갖는 社會階層이라면 모두 共産革命을 위한 重要한 要素로 간주하고 흡수하도록 하고 있다.

가령 「레닌」은 「플레카노프」의 古典的 「맑스」主義의 主張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러시아」農民들을 共産革命에 利用하기를 주저 하지 않았으며 毛澤東도 原來 「「콤민테른」의 指示를 여기면서 까지 中國社會內에서 가장 重要한 不滿分子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한 農民을 共産革命에 利用했던 것이다.

따라서 具體적으로 共産主義者들이 革命戰略의 焦點을 社會의 어느 계층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共産主義 理論에 依해서 決定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社會의 特殊한 歷史的 政治的 및 經濟的 條件에 依해서 決定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모든 共産革命戰略에

있어서 共通되는 點은 주어진 社會秩序의 不條理 現象으로 因한 不滿分子들을 最大限으로 利用한다는 事實이다.

勿論 共產主義者들은 그러한 社會的 不滿을 선동하고 人爲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해서 모든 성공한 共產革命의 例를 본다면 (蘇聯의 占領軍下에 共產화된 경우는 共產革命의 例로 尙주할 수 없음) 共產主義者들이 社會的 不滿을 利用할 수 있었던 理由는 既存體制가 이미 相當한 不條理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가령 帝政「러시아」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生活條件의 改善의 可能性이 막혀 있었다던가 또는 健全한 體制內的인 意思疎通의 길이 不在했다던가 혹은 中國의 社會的條件의 半植民地的 내지 半封建的이었다는 事實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社會 不條理 現狀이야말로 共產革命戰略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理想的인 必要條件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共產革命戰略의 두번째의 특징은 그것은 항상 初期段階에 있어서는 共產革命이 아닌 汎社會的 運動인 듯한 인상을 준다는 點이다. 이것은 共產主義 革命戰略이 共產主義를 宣傳하는 「푸로레타리아」에 依해서만 성공할 수는 없고 社會의 모든 不滿要素들을 動員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非共產不滿勢力을 動員하기 위해서는 共產主義理念以外的 다른 상징을 利用할 必要가 있다. 그리하여 大部分인 경우에 있어서 共產主義者들은 感情的 民族主義와 모호한 社會正義라는 概念을 내걸고 그들에게 反對되는 다른 모든 勢力을 反民族 내지 反社會正義의 勢力으로 規定하는 手法을 사용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에 「레닌」은 共產主義를 웨치기 보다 「農  
土는 農民에게！」라는 엄격하게는 反「맑스」主義的인 口號를 내  
걸었던 것이다. 그리고 中國共產主義者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民主  
主義感情을 最大限으로 利用하면서 中國人の 단순한 愛國心에  
호소하였으며 特히 反日鬪爭을 共產革命의 目的을 위한 戰略的 手  
段으로 삼았던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경  
우에도 共產主義者들은 反「나치」運動을 그들의 共產化作業의 戰  
略的 手段으로 利用했고, 二次大戰後 民主主義를 代表하는 勢力으로  
자처하면서 심지어 그들의 「쿠데타」를 民主守護라는 이름으로  
合理化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特히 共產主義者들이 汎民族的 運動을 假裝하는 戰術으로써 그들은  
소위 聯合戰線이라는 手法을 使用한다. 즉 民族的 危機를 利用  
하여 共產主義의 궁극적인 目的인 「프로레타리아」獨裁의 實現을  
포기한 것 같은 인상을 줌으로써 非共產主義勢力과 團合 또는  
合作하는 形態를 갖춘 다음에 內容的으로 그렇게 하여 조직된  
이른바 聯合戰線을 共產革命을 위한 道具로 使用한다. 이러한  
戰術은 共產主義 本質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理想主義的 民族  
主義者들을 기만하고 결국은 權力을 完全히 獨占하는 方法으로  
使用되고 있는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社會의 不條理한 面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째로 共產主義革命戰略은 철저하게 훈련된 黨의 조직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은 聯合戰線 등의 手法으로 汎民族的 運動을 假裝하고  
非共產主義勢力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權力을 內容的으로 「콘트롤」

하기 위해서 絶對로 必要한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훈련된 少数의 「엘리트」黨을 기초로 共產主義者들은 非共產勢力을 조종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레닌」이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強調한 바와 같다. 소위 「民主的 中央集權主義」를 主張한 「레닌」은 黨組織의 絶對性을 그의 革命活動의 가장 重要한 原則으로 삼았으며 黨의 組織이 없는 革命이란 그에게 있어서는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다.

毛澤東도 역시 黨의 組織을 革命運動의 生命으로 생각하였다. 黨組織없이 非共產民族勢力을 조작하는 것은 不可能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체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1948년 2月の 決定的인 「쿠데타」의 순간에 共產主義者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理由는 역시 強力한 組織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反面에 反共勢力이 패배한 理由는 組織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네째로 共產化戰略의 특징은 共產主義者들은 흔히 合法的 行動方法과 폭력을 포함하는 不法的 行動方法을 同時에 使用한다는 점이다.

共產主義의 性格을 正確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共產黨도 다른 모든 政黨과 마찬가지로 合法的 政治活動을 하는 政治集團으로만 보던가 아니면 地下組織으로서 法の 테두리밖에서만 行動하는 不法集團으로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러시아」, 中国, 「체코」

等の例에서 볼 수 있듯이 共產主義者들은 그들의 革命的 목적을 達成하기 위하여 一面으로는 出版, 政党活動等の 合法的活動도 하는 가 하면 他面으로는 비밀조직으로부터 「테로」에 이르기까지 不法的行動도 展開한다. 따라서 共產主義者들은 그들의 共產化活動에 대한 非共產主義者들의 判斷에 혼란을 이르키며 情勢의 變動과 그 때 그때의 狀況에 따라 合法活動과 不法行爲를 교묘하게 並行하여 使用한다.

마지막으로 共產主義者들은 非共產 社会团体 및 組織에 戰略的으로 偽裝浸透하여 이른바 五列을 構成하고 모든 可能的 反共勢力을 内部로부터 弱화시키며 決定的인 순간에는 오히려 이러한 非共產团体나 組織들을 안으로부터 「컨트롤」함으로써 逆利用한다.

이것은 「레닌」이 「듀마」와 노동조합等を 利用한데서도 볼 수 있지만 特히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에는 共產化戰略의 가장 決定的인 要素였다고 할 수 있다. 上記한 바와 같이 「체코」共產主義者들은 모든 社会团体와 政党組織等に 침투하여 共產「쿠데타」의 決定的인 순간에 反共勢力을 完全히 마비시키고 오히려 非共產組織等を 逆利用하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이 밖에도 勿論 좀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中共의 軍事戰略概念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共產化戰略의 특수성을 더 많이 지적할 수는 있겠으나, 자세한 것은 이미 앞서 論했으며, 여기서는 一般的인 側面만을 分析하기 위하여 大体로 以上과 같은 다섯가지의 특징을 들었다 인제 다시 이것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共產主義 革命戰略은 特定社会의 不条理現象을 利用함으로써

社会不滿 要素를 극대화하고 動員한다.

둘째로 初期段階에 있어서 共產主義革命運動은 汎民族的 非共產運動을 表示한다.

세째로 共產主義運動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철저한 少數共產黨組織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에 依하여 조종된다.

네째로 共產主義者들은 合理的行動方法과 不法的行動手段을 同時に 使用하여 그 具體적인 相互均衡은 特定한 情勢와 狀況에 依하여 決定된다.

다섯째로 共產主義者들은 非共產社会团体 및 各種 組織들을 위장 浸透하여 反共勢力을 마비시키며 그러한 團體와 組織들을 그들의 共產化 目的을 위하여 逆利用한다.

以上은 두말할 것도 없이 共產化戰略의 一般的인 性格이며, 그 具體적인 表現은 個別社會의 特殊한 조건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社会不滿要素를 利用하는데 있어서 特定한 社會의 狀況에 따라 社会不滿要素는 노동자, 농민, 학생, 지식인 또는 軍人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要는 그 社會의 特殊한 不条理現象의 構造가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具體적인 內容에 있어서는 差異가 있지만, 以上에서 指摘한 바와 같은 다섯가지의 戰略的 原則은 모든 共產革命過程에서 發見되는 点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지적한다면 大部分의 共產化過程은 戰爭으로 因한 혼란기에 進行되었다는 事實이다. 이것은 「러시아」가

第1次大戦中に 共産化되었다는 事實, 中国이 「中日戦争」의 혼란속  
에서 共産化되었다는 点, 그리고 「체코」나 其他 東欧国家들도 第  
二次大戦으로 因하여 蘇聯의 占領軍下에서 共産化되었다는 事實들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戦争의 혼란이 共産化의 必要条件이라고 할  
수 는 없을런지 몰라도 적어도 그것을 촉진시키는 環境이 되고  
있다는 事實만은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 Ⅲ. 北韓共產主義者들의 革命戰略

#### (1) 統一問題와 共產革命과의 關係

北韓共產集團은 韓半島의 共產化統一을 그들의 至上目標로 하고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北韓共產主義者들에게 있어서 共產化를 前提하지 않은 統一이란 그들의 共產體制를 否定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決코 받아 들여 질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體制의 本質에 屬하는 問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北韓共產主義者들에게 있어서는 共產化統一을 達成하기 위한 手段方法의 問題만이 있을 뿐이다. 目的은 이미 決定되어 있으며 그것은 決코 拋棄할 수 없는 共產體制의 本質的인 指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韓半島에 있어서의 共產化統一을 達成하기 위하여 北韓共產主義者들은 어떠한 方法을 使用하고 있는가?

根本적으로 韓半島의 共產化統一을 위해서는 武力手段에 依한 方法과 平和的方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實際로 北韓共產集團은 武力的인 方法과 平和的인 方法을 相互補助的으로 使用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共產化戰略에 있어서의 一般的인 兩面性에 一致하는 現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共產化統一의 方法으로서 北韓이 武力手段을 全面的으로 使用했던 것은 물론 6·25 南侵의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밖에도 1968年의 武裝間諜南派, 그리고 最近의 四大軍事路線等은 모두 北韓共產集

團이 共產化統一의 手段으로서의 武力을 그들의 戰略의 重要한 要素로 看做하고 있다는 事實을 말해 주고 있다.

北韓共產主義者들이 戰爭을 共產化統一의 可能한 手段으로 생각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理由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金日成의 性格과 그 經驗的背景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金日成 自身뿐만 아니라 金日成體制를 이루고 있는 主要人物들은 모두 「게릴라」出身으로써 戰爭은 그들의 生의 意味를 決定지어준 가장 重要한 경험이었으며, 그들의 理念的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武力手段을 使用한다는 것은 매우 自然스럽고 当然한 것으로 認識되고 있음이 틀림없다. 다시 말하면 金日成을 위시한 北韓共產集團의 決定作成位置에 놓여 있는 主要人物들의 立場에서 생각하면, 그들의 경험과 價值觀을 고려할 때 武力的手段이란 目的達成을 위하여 合法的인 方法中の 하나로 認識될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그들은 모든 共產化가 成功한 경우에 있어서 戰爭으로 인한 혼란이 重要한 成功要因이 되고 있다는 事實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러시아」, 中國, 東歐 및 北韓에 있어서 共通되는 點인데, 戰爭으로 인한 혼란속에서 政治, 社會 및 經濟의 秩序가 무너진 틈을 利用하여 共產主義者들은 權力을 장악하고 이른바 「프로레타리아」獨裁를 確立하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따라서 北韓共產主義者들도 韓半島에서 戰爭을 일으킴으로써 共產化의 機會를 發見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北韓共產主義者들은 平和的方法에 依한 共產化統一이 不可能하다고 判斷될 때에 武力統一의 方法을 択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할 可能性이 있다. 特히 韓國이 北韓보다 앞으로 계속 더 빠른 成長速度로 發展되어 나간다고 가정할 때에 北韓共產主義者들은 共產化統一을 早速한 時日內에 達成해야 한다는 促迫感에 사로 잡히게 될수 있으며 따라서 共產化統一의 早速한 實現을 위하여 平和的方法이 非効課的인 狀況下에서 그들은 武力手段을 使用하기로 決定할 可能性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가지 여기서 지적해야 할 點은 根本적으로 共產主義者들은 武力使用에 있어서 적어도 手段的인 意味에 있어서는 合理主義的態度를 取한다는 點이다. 다시 말하면 共產主義者들은 武力行使 그 自体를 하나의 目的이나 또는 美德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共產獨裁를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手段으로서 認定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點에서 共產主義는 「파시즘」과 區別된다고 하겠다. 周知하다 싶이 後者는 폭력 그 自体를 美德과 意志의 表現으로 禮讚하고 있지만, 共產主義者들은 폭력을 共產革命過程의 한 要素로 보고 있다. 따라서 北韓共產主義者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들의 폭력에 대한 態度는 手段的인 意味에 있어서 合理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結局 北韓共產集團이 武力을 使用할 때에 그들의 目的 즉 共產化統一을 實現할 수 있는 客觀的 條件이 造成되어 있는가 하는 點을 고려한다는 뜻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北韓의 武力

挑発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武力을 行使하는 경우에 그들의 궁극적인 目的 즉 共產化統一이 이루어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틀림없이 그들에게 決定的인 損失을 가져 올 수 밖에 없다고 그들이 判斷할 수 있도록 客觀的條件을 造成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北韓共產主義者들의 武力挑發可能性을 除去하기 위하여 韓國은 相當한 軍事的報復能力을 所持하고 있어야 하며, 이것이 곧 韓國이 必要로 하는 安保體制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北韓共產主義者들은 武力과 平和的方法을 相互補助的으로 使用하고 있다. 따라서 韓國은 軍事的 준비태세와 아울러 그들의 이른바 平和的共產化統一戰略에 對備할 수 있는 體制를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서 平和的方法이라 함은 北韓共產主義者들이 平和功勢의 一環으로 내어 놓은 소위 平和的統一을 위한 提示案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소위 聯邦制案을 포함한 그들의 提案들은 根本的으로 共產化統一을 達成하기 위한 欺瞞的手段에 不過하다.

여기서 武力統一과 대조적으로 使用하고 있는 平和的統一의 概念은 北韓共產主義者들이 主張하여 온 이른바 「南朝鮮革命」이 성공한 것은 前提로 其後에 平和的으로 南과 北이 하나의 共產體制로 合致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北韓共產主義者들에게 있어서 平和的統一이란 「南朝鮮革命」을 前提하고 있는데 實際로 「南朝鮮革命」이란 概念은 暴力的 方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平和的統一은 真正한 意味에 있어서의 平和的統一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그들이 平和統一을 말할때는 暴力의 役割을 統一에 先行하는 「南朝鮮革命」에 적용시키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統一의 問題와 共產化와의 問題에 對한 北韓의 立場을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共產化없는 統一은 생각할 수 없으며 오로지 共產化를 통한 統一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北韓共產主義者들의 基本立場이다.

둘째로 客觀的條件에 따라서 必要하고 可能하다면 共產化와 統一은 同時에 武力的手段에 依하여 實現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北韓共產主義者들은 恒常 武力使用을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客觀的條件으로 因하여 直接的인 武力行使를 試圖할 수 없는 동안, 또는 그렇게 할수 있는 決定的인 순간을 기다리는 동안 이른바 「南朝鮮革命」을 이룩할수 있도록 모든 努力을 하며, 그러한 「南朝鮮革命」이 성공하여 그들이 말하는 소위 「革命主体勢力」이 權力을 장악하게 되면 平和的方法에 依해서 統一이 可能해 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本 論文에서는 共產化戰略의 軍事的側面보다도 政治的側面에 分析의 軸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以上에서 마지막 概念 즉 「南朝鮮革命」을 위한 北韓共產主義者들의 戰略을 分析하고 이에 對한 對備策을 提示하고자 한다. 다만 北韓共產主義者들의 政治的次元에서의 共產革命戰略을 취급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武力的方法을 배제하고 있다는 뜻은 決코 아니라는 點만은 밝혀둔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共產主義戰略의 특징은 合法的인 行動과 不法的인 行動, 武力的인 方法과 平和的인 方法을 모두 同時에 使用하고 있다는 事實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것은 北韓共產主義者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 (2) 「南朝鮮革命」의 概念과 戰略

金日成은 1965年 4月 14日 「인도네시아」 「알리아랍」 社会科学院에서 行한 演說에서 祖国統一은 반드시 「남조선혁명」을 거쳐서만이 可能하다고 主張함으로써 「南朝鮮革命」이라는 概念을 公式的으로 發表했다.

그후에도 金日成의 發言이나 또는 「朝鮮勞動黨」의 發表를 通하여 「南朝鮮革命」이라는 概念은 여러번 되풀이 되고 있는데 內容은 大体로 同一한 것이다.

根本的으로 「南朝鮮革命」이란 「南朝鮮人民들이 現政權을 뒤집어엎고 進歩的勢力이 政權을 쥐는」過程을 뜻하며, 그러한 過程을 거친 다음에야야 祖国統一이 可能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南朝鮮革命」은 「祖国統一」을 위한 先行条件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共產主義者들은 兩概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差異點을 두고 있다.

첫째로 그 目的에 있어서 「祖国統一」은 分裂된 国土와 民族을 合치기 위한 소위 「民族的 解放」을 指同하고 있으며 「南朝鮮革命」은 南半部에서 現政權과 體制를 타도함으로써 소위 「階級解放」을 至上課業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얼핏 보기에 祖国統一은 「民族的 解放」으로 定義되고 있기 때문에 非理念的인 凡民族的概念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北韓共產主義者들은 「南朝鮮革命」을 前提로 「祖国統一」을 論하고 있기 때문에 後者의 概念을 非理念的인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完全히 無意味한 것이다.

다만 形式上 두 概念은 独自の인 것으로 定義되고 있을 뿐이며

實際로는 同一한 過程의 두개의 단계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正確하다.

둘째로 祖国統一은 南北全域에 해당되는 과업이기 때문에 「南北人民」全部가 主体가 되어야 하지만 「南朝鮮革命」은 「남조선」지역에 局限된 문제이므로 「남조선 인민」이 主体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以上과 같은 主体속에서도 統一과 革命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勢力은 祖国統一의 경우에는 北韓의 이른바 「革命力量」이라고 할 수 있고 「南朝鮮革命」의 경우에는 「남조선」의 노동자, 농민 등을 비롯한 大衆이며, 좀더 決定的인 役割을 담당하게 될 이른바 「영도계급」은 「노동계급」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戰術的인 方法으로 實現可能하지만, 「南朝鮮革命」은 오로지 暴力的인 方法에 依해서만 可能하다고 主張하고 있다. 上記한 바와 같이 「南朝鮮革命」은 「계급해방」을 위한 「계급투쟁」이니만큼 「남조선」의 現政權을 무너트리기 위해서는 暴力的인 方法은 不可避하다는 것이다.

以上에서 北韓共産主義者들이 말하는 「南朝鮮革命」의 概念的인 性格을 그들의 「祖国統一」概念과 比較하여 보았지만, 實際로 共産化統一의 戰略에 있어서 그들은 가장 重要한 問題가 되는 共産化의 過程을 「南朝鮮革命」이라는 概念속에서 흡수시켜 버리고 있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共産化 統一戰略은 결국 「南朝鮮革命」戰略과 一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點에서 그들의 共産化 統一戰略을 알아 보기 위해서는 「南朝鮮革命」戰略을 좀더

자세히 分析해 볼 必要가 있다.

### (1) 南朝鮮革命의 概念

周知하는 바와 같이 共產主義理論에 依하면 모든 社會는 生産關係에 依하여 決定되며, 生産關係에 있어서의 이른바 모순은 계급투쟁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그러한 계급투쟁이 혁명 과정을 초래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視点에서 南朝鮮革命을 定義한다면, 그것은 「南朝鮮」社會內에서의 특수한 生産樣式 및 關係에 근거한 계급적모순 내지는 계급투쟁으로 理解될 수 있다. 그리고 實際로 北韓共產主義者들은 「南朝鮮革命」이란 美帝와 地主, 資本家 및 政治權力層으로 構成되는 이른바 「착취계급」과 「노동자, 농민, 도시, 소시민 및 民族資本家」등을 포함하는 소위 「민족적세력」사이에 不可避하게 일어나는 모순과 對立과 鬭爭이라고 보고 있다.

北韓共產主義者들은 南韓을 소위 半封建的植民地로 概念化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理論에 依하면 南韓社會에서 가장 重要한 모순은 植民地的性格으로 인한 「美帝와 南朝鮮人民」과의 矛盾과 半封建的性格으로 인한 「地主 資本家」등의 착취계급과 「노동자, 농민」과의 矛盾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南朝鮮革命」은 本質的으로 「反帝, 反封建 民主主義 革命」의 性格을 갖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主張이다.

여기에서 한가지 重要한 點은 北韓共產主義者들이 「南朝鮮革命」을 共產革命으로 규정하지 않고 「反帝, 反封建 民主主義 革命」으

로 定義하고 있다는 點이다. 이것은 勿論 欺瞞的인 것임에 틀림 없다. 共產革命戰略의 一般的性格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共產主義者들은 적어도 革命의 初期段階에 있어서는 그들의 革命을 公산혁명이라고 밝히지 않고 凡民族的인 運動인것 처럼 위장하는 戰術을 使用한다. 마찬가지로 北韓共產主義者들도 內容的으로는 共產化를 目的으로 하는 「南朝鮮革命」의 概念을 表面的으로는 共產主義와 直結시키지 않고 「反帝 反封建 民主」을 내 걸므로써 非共產勢力을 흡수 및 動員하려고 하는 戰術的底意를 나타내고 있다.

#### (ㄴ) 南朝鮮革命의 主体勢力

앞서 이미 지적했지만, 金日成은 「남조선 혁명은 결국 남조선인민들의 革命力량의 成長과 그들의 決定的인 鬪爭에 依해서만 勝利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祖國統一이 「南朝鮮人民」에 依해서만 達成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祖國統一에 先行되는 「南朝鮮革命」은 「南朝鮮人民」들이 수행하여야 하며, 北韓의 「人民」들은 「南朝鮮人民」들의 鬪爭을 도와줄 수는 있으나 「南朝鮮人民」을 代身해서 직접 「南朝鮮革命」을 추진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다.

그 理由는 「南朝鮮革命」자체가 「南朝鮮」社會의 内部的 矛盾으로부터 必然的으로 發生하는 變증법적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南朝鮮革命」은 「英帝와 現政權을 一方으로 他方으로는 노동자, 농민 青年學生, 小市民, 民族 「부르조아지」間的 계급적 및 민족적 투쟁이며,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南朝鮮人民」만

이 그러한 혁명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北韓「人民」들은 아무런 役割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南朝鮮人民」이 革命의 主体가 되지만, 소위 「共和國北半部人民」들은 「南朝鮮人民」의 혁명적 투쟁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할 重大한 責任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對南工作을 뒷바침하는 理論이며 實際로 이와같은 理論的前提下에 그들은 「南朝鮮革命」은 촉진시키기 위하여 對南工作을 벌여 온 것으로 해석된다.

「南朝鮮革命」의 主体勢力은 「南朝鮮人民」이라고 했지만, 보다 具體적으로 分析한다면,北韓共產主義者들은 소위 「革命 主力軍」이라는 概念下에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동자·농민」계급과 그속에 基盤을 둔 共產黨의 役割을 가장 重要視하고 있다. 그러니까 「南朝鮮革命」의 主体勢力에 대한 그들의 思考方式은 「러시아」革命에 대한 「레닌」의 思考方式과 一致한다고 할 수 있으며 農民의 役割을 重要視한 것은 中共의 革命經驗을 토대로 주로 新生國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反封建的性格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地下共產黨을 조직하고 그 주위에 「노동자·농민」을 뭉치게 하며 이 계급을 共產黨조직이 영도한다고 하는 방식은 앞서 共產革命戰略의 一般的性格을 論할때에 이미 지적되었던 共產化方法의 共通된 点이다. 즉 그들은 特定한 社會에 있어서 發見될 수 있는 모든 不滿의 要素를 利用함으로써 最大限의 反體制的社會要素를 動員하고 이들을 조종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훈련된 共產黨組織을 갖는다. 그런데 바로北韓共產主義者들도 「南朝鮮革命」을 위한 戰略의 基本前提로서, 韓國社會에서의 잠재적 불만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농민」을 선동 및 조종하기 위하여 強力한 地下共產黨을 조직할 것을 重要視하고 있다. 일단 그와같은 革命主体勢力이 조직되고 나면, 그들은 다음과 같은 戰略을 적용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

### (ㄷ) 「南朝鮮革命」의 戰略

以上과 같은 南朝鮮革命을 위한 主体勢力을 바탕으로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흔히 共產主義들이 共產化戰略에서 使用하고 있는 이른바 統一戰線을 形成할 것을 내 세우고 있다. 보통 이것은 聯合戰線 또는 人民戰線이라고도 불리우는 概念을 모방한 것인데 基本的으로 革命의 主体勢力이 될 黨組織을 中心으로 「노동자 농민」이 뭉치고 거기에 補助的인 役割을 하기 위하여 各階各層을 망라한 소위 統一戰線을 形成한다는 것이다.

그들에 依하면, 統一戰線은 「노동자, 농민, 青年學生, 知識人, 都市小市民 그리고 民族資本家」등을 包含하는 광범위한 勢力으로써 이들을 한데 뭉치게 하는 基本要因은 「美帝」의 「植民統治」에 대한 反抗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統一戰線은 「反美救國統一戰線」이라는 것이다.

특히 여기에서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青年, 學生 및 知識人」들의 役割을 強調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이러한 社會成分의 소위 「革命性」을 前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以上과 같은 社會階層은 「노동자 농민」과 함께 「美帝」와 「現政權」으로 부터 가장 큰 苦痛을 겪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렇게 形成된 統一戰線은 앞서 말한 革命의 主体勢力에 대해서 補助的役割을 담당하게 되는데 특히 「南朝鮮革命」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必要한 客觀的條件을 造成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

具體的으로 革命을 위한 客觀的條件을 造成하는 일은 결국 革命을 저해하는 이른바 「反革命勢力」을 弱화시키는 것을 意味한다.

그런데 「反革命勢力」이란 우선 美帝를 意味함으로 美帝를 몰아내는 運動이 곧 「南朝鮮革命」을 위한 運動으로 理解되고 있으며, 共產主義者들의 活動을 방지하고 있는 韓國의 反共體制를 弱화 및 철폐시키는 것이 또한 革命을 위한 條件造成作業으로 되고 있다.

특히 지적할만한 事實은 韓國의 軍隊를 反體制化함으로써 革命勢力쪽에 가담하도록 하자는 그들의 主張이다. 가령 金日成은 「軍隊는 지배계급이 의거하고 있는 마지막 아성이다. 革命의 歷史는 軍隊가 人民의 편으로 넘어올 때에 어떠한 支配階級도 滅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國軍을 革命勢力에 가담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重要한 일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니까 「南朝鮮革命」을 위한 그들의 戰略은 革命勢力의 強化와 反革命勢力의 弱화라고 하는 基本原則으로 되어 있으며 勢力의 区分은 韓國社會의 構造와 특히 「美帝」와의 關係에 依하여 決定된다는 것이 그들의 基本立場이다. 그리고 이러한 戰略은 決定的 時期가 도달하기 까지 계속 끊임없이 이끌고 나가야 하는데 이것은 결국 「革命勢力」을 保存하고 擴大하고 強化해 나가면서 反革命勢力을 弱화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鬪爭을 繼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北韓人民」도 「南朝鮮人民」을 지원하는 活動을 積極적으로 展開해야 할 任務를 갖고 있는데, 그 具體的 形式은 變化하는 狀況과 情勢에 따라 變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南朝鮮革命」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對南工作을 展開

하며 그 具體的 方法은 可變的인 것이다. 다만 變할 수 없는 것은 「南朝鮮革命」의 必要性和 그 基本戰略 즉 革命勢力의 性格과 反革命勢力과의 鬭爭의 必要性이라고 할 수 있다.

### (3) 對南戰略의 展望

北韓共產主義者들의 궁극적 목표는 共產化統一이다. 그리고 共產化統一을 成就하기 위한 그들의 基本戰略은 「南朝鮮革命」이라는 概念으로써 定義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北韓共產主義者들이 取할 對南戰略이란 어떤 것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이 使用하고 있는 戰略과 戰術의 概念的差異를 고려할 必要가 있다.

共產主義者들에 依하면 戰略은 社會構造가 내포하고 있는 基本的인 矛盾關係에 依하여 決定되기 때문에 「革命」이 폭발하는 순간까지의 「史的過程自體의 客觀的法則에 기초하고 있으며, 階級鬭爭의 不變的인 鬭爭過程을 뜻한다. 戰術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基本戰略에 依하여 革命을 推進하는 과정에 있어서 一時的인 또는 偶然的인 또는 個別的인 모든 狀況的變化와 情勢에 適應하는 잠정적인 行爲를 뜻하며 따라서 戰略에 대하여 補完的인 關係에 놓여 있는 可變的 行動方式을 意味한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北韓共產主義者들의 對南戰略은 變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變하는 것은 戰術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論理는 實際로 無意味한 形式論理가 될수도 있겠으나 北韓의 경우에는 그들 스스로가 이미 앞서 본바와 같이 「南朝鮮革命」의 「戰略」이 무엇인지를 分明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對南姿勢의 展望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도움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北韓共產主義者들이 不變的인 戰略으로써 規定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絶對로 영원히 不可變的인 것이라고 하는 保障은 없다. 그러나 相對的으로 그들이 現在 戰術이라고 하는 것이 變할 可能性이 이른바 「戰略」이 變할 可能性보다는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南朝鮮革命」이라는 概念과 이에 따르는 基本戰略은 앞으로도 繼續 有效할것으로 내다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北韓共產主義者들은 앞으로도 共產化統一의 基本戰略으로 「南朝鮮革命」을 追求할 것이며 「南朝鮮革命」을 推進하기 위해서 「南朝鮮」에 있어서의 共產黨地下組織을 中心으로 「노동자 농민」을 結束하도록 하게 하고, 이렇게 形成된 革命勢力을 擴大 및 強化하게 하기 위하여 「青年, 學生, 知識人, 小市民, 民族資本家」등을 包含하는 소위 民族統一戰線을 形成하며, 또한 同時에 革命을 위한 條件造成을 위하여 反革命勢力을 弱化 및 분쇄하는 努力을 繼續하는데 「北韓人民」은 이러한 「革命課業」을 直接 主体가 되어 推進하지는 못하지만 적극지원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可變的戰術이라고 하는 것은 以上과 같은 戰術을 適用하는데 具體적으로 必要的인 行動方式인 것이다.

가령 예를 들면 그들의 「南朝鮮革命」戰略中에서 反革命勢力을 弱化시켜야 한다는 原則을 실천에 옮기는데 있어서 그들은 情勢의 變動에 따라 南北間의 緊張을 高潮시킬수도 있고 또는 緩和되는 인상도 줄려고 할 것이다. 그들이 어떤 方法을 採하느냐 하는 것은 그때의 情勢에 대한 그들의 判斷如何에 달려 있다. 다만, 그 目的은 그들의 基本戰略에 依하여 이미 決定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그들의 基本的인 對南戰略은 앞으로 그 目標에 있어서나 原則에 있어서 根本적으로 變하지 않을 것이며, 情勢變動에 따라 戰術的인 行動方式만이 變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의 對策은 그들의 戰術的인 行動方式에 집착하지 말고 보다 根源적으로 그들의 戰略이 提起하는 問題를 해결하는 方向으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곧 本論文의 基本的인 主題라고 할 수 있다.

## IV. 北韓의 對南戰略에 대한 對備策의 原則과 方向

### (1) 共產化戰略과 對備策의 問題點

北韓共產主義者들의 「南朝鮮革命」戰略은 놀라울 정도로 共產革命戰略의 一般的模型과 一致한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北韓의 共產化統一戰略에 대한 對備策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當面하게 되는 問題點은 一般的으로 共產革命戰略에 대한 對備策에 있어서 提起되는 共通的인 問題點이라고 할수 있다. 이런 點에서 우리는 具體적으로 우리의 對備策을 論하기 前에 먼저 反共戰略의 一般的인 問題點부터 솔직하게 지적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共產主義의 革命戰略은 그들의 理論에 기초하고 있는데, 根本적으로 革命이란 社會의 歷史的인 生産關係의 變遷과정에서 提起되는 矛盾의 必然的인 激化에 따르는 構造的 變動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다. 물론 이러한 理論은 客觀的 眞理라고 할수 없다. 왜냐하면 社會構造에 있어서의 緊張이나 갈등은 있지만 「矛盾」이란 社會的概念이 아니라 論理的概念이며, 革命的 變動은 決코 必然的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問題는 그들의 理論이 客觀的 妥當性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것이 아니라 그러한 理論에 依하여 行動하는 共產主義者들이 提起하는 挑戰을 어떻게 克服할수 있을 것인가 하는 點이다.

共産主義者들은 그들의 革命이 社会的矛盾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결국 그들은 既存社会秩序에 있어서의 不条理한 면과 其他 모든 취약점을 最大限으로 利用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共産主義革命戰略의 가장 重要한 原則이다.

그런데 共産主義者들의 이와같은 戰略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매우 根本적인 「딜레마」를 提起하게 된다.

우선 어떤 사회에 있어서나 不条理한 면이나 또는 緊張과 갈등의 要素가 전혀 없는 사회는 存在하지 않는다는 事實부터 認定할 必要가 있다. 完全한 理想的인 사회는 幻想과 神學의 世界에 屬한다. 經驗과 歷史속에 存在하는 모든 사회는 程度의 差異는 있으나 本質적으로 모두 不条理한 면을 내포하고 있으며 緊張과 갈등은 現實적으로 不可避한 것이다.

따라서 共産主義者들의 戰略은 어떤 사회에 대해서도 일단 어느 정도의 挑戰은 提起할 수 있다.

그런데 共産主義의 이와같은 挑戰에 대한 対応策으로써 많은 경우에 모든 緊張과 갈등을 除去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生産主義者들이 社會의 不条理現象을 利用하려고 하니까 그러한 不条理現象이 존재한다는 事實자체를 否認하고, 그들이 갈등과 긴장을 利用하니까 갈등과 긴장을 不許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수가 많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한 方法은 충분히 同情할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反共政策의 結果는 오히려 共産革命을

위한 社会的条件을 造成하는 逆機能的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왜냐하면, 社会不条理現象이란 그 存在事實을 否認한다고 해서 决코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긴장과 갈등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原因的要素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否定的 反共政策은 다만 긴장과 갈등의 陽性的인 表現을 禁止함으로써 그것을 陰性化할 可能性만 많아지게 하고, 社会不条理現象의 存在자체를 否認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할수 있는 積極的 对共政策의 可能性만 박탈하는 결과를 招來하게 된다고 해도 過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共產革命戰略에 对備한 反共政策의 가장 根本的인 問題点이라고 할수 있다. 이와 같은 問題点을 처음부터 正確하게 認識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对策을 發見하지 못한다면, 결국 共產主義者들의 歷史觀을 眞實로 確認해 주는 悲劇을 自招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本論文에서 提示하는 对共產戰略은 이와같은 우리 社会自体의 基本姿勢의 問題에서 부터 出發하고 있는 것이다. 반복하거니와, 우리는 「共產革命」을 위하여 必要條件이 되고 있는 종류의 社会를 造成하는 逆機能的인 反共政策을 채택하는 오류를 决코 범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

## (2) 对共戰略의 原則

共産主義의 排戰을 극복할 수 있는 对共戰略은 두말할 것도 없이 共産戰略의 性格에 따라 決定된다. 이러한 觀點에서 对共戰略의 原則을 提示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리 社会자체의 不条理現象을 極少化할 뿐만 아니라 모든 緊張과 갈등을 陽性的으로 解消, 극복 및 管理할 수 있는 制度를 具現해야 한다. 그러한 制度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一般論적으로 말할 수 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社会의 体制가 機能的으로 要請을 만족시켜야 하는가 하는 點만은 分明하다. 그것은 共産主義者들이 利用할 수 있는 취약점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完全한 社会, 絶對的 正義, 幻想的 調和를 기대할 수 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程度의 問題다. 어떤 社会에 있어서나 利得의 差는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근로대중이 희망을 잃고 富에 대하여 敵對意識을 갖게 된다면, 이것은 共産革命을 위하여 소위 客觀的條件을 造成하여 주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对共戰略의 第1原則은 社会体制의 機能的 整備라고 할 수 있으며 社会正義의 眞現이야. 말로 가장 효과적인 对共戰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共産主義者들은 적어도 初期段階에 있어서는 그들의 革命運動을 共産主義運動으로 선전하지 않고 汎民族的性格을 갖인 運動으로 내세우는데, 가령 北韓共産主義者들도 「남조선혁명」을 「反美帝, 反封建 民主主義 革命」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따라서 对共

戰略의 또 하나의 가장 重要한 原則은 汎民族的인 團合과 全社會的 結束을 이룩할 수 있는 理念을 開發해야 된다는 點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反共政策은 共產主義理論을 反對하거나 억제하는 것을 重要視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否定的이며 消極的인 方法에 不遇하다.

우리는 積極的인 對共政策이 必要하다. 우리는 우리 社會의 青年, 學生, 知識인, 근로자, 農민, 小市民等의 眞心으로 부터의 共感과 同意 그리고 熱意를 불러 이르킬 수 있는 理念과 思想이 必要하다.

물론 어떤 社會에 있어서는 그 社會의 傳統的政治理念과 社會理想 및 文化가 그러한 共產主義를 극복하는 汎民族的 理念의 役割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大部分 安定된 先進國에 屬하며, 歷史의 연속적 發展過程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社會는 어떤 意味에 있어서는 斷絶의 歷史背景을 갖고 있으며 傳統에만 依存하기는 어려운 立場에 놓여 있는 社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近代化過程에 놓여 있는 社會에 있어서는 共產主義를 克服할 수 있는 새로운 理念의 開發이 重要하다.

두 말할 것도 없이 그러한 理念이 없다고 해서 社會가 곧 붕괴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社會正義를 實現하지 못했다고 해서 社會秩序가 即時로 무너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社會는 共產革命을 위한 溫床을 提供해 주며 장기적으로 共產革命의 성공

을 可能하게 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共産黨의 組織問題가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共産主義者들은 共産黨組織이야말로 共産革命에 있어서 가장 核心的인 役割을 한다고 믿고 있다. 이것은 「레닌」主義의 基本前提가 되고 있지만 金日成도 「남조선혁명」과 관련해서 똑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共産黨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문제는 重要한 問題라고 할 수 있다.

성숙한 安定된 先進國의 경우에는 共産黨을 陽性化시킴으로써 그것을 弱化시키는 方法을 使用하고 있다. 이것은 앞서 지적한 두 가지의 原則, 즉 社會體制의 整備(또는 社會正義의 相對的인 具現)와 共産主義를 克服할 수 있는 理念의 開發에 성공한 경우에는 가장 合理的인 方法일 수 있다. 그러나 萬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현명한 方法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共産主義의 선전과 활동을 克服할 수 있는 힘은 없으면서 그들에게 組織에 기초한 활동과 선전의 기회만을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現時點에서 共産黨을 揚性化시켜 弱化시키는 戰略은 擇할 수 없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共産黨組織은 허락할 수 없다.

그러나 단 한가지 注意할 것은 共産黨과 共産黨이 아닌 勢力의 区分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共産黨에 屬하지 않는 勢力임에도 불구하고 잘 못 취급함으로써 陰性化하기도 하고 結果적으로 反體制化함으로써 共産化까지 해 버리는 경우

도 없지 않다. 이것은 바로 共產主義者들이 바라고 있는 것인데, 反共을 위하여 親共을 하는 결과를 招來한다는 것은 참으로 悲劇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에 共產主義者들이 合法的方法和 不法的方法을 포함하여 戰術적으로는 最大限의 伸縮性 또는 可變性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對共戰略에 있어서도 具體적인 戰術에 있어서는 決코 어떤 特定한 公式이나 事例에 집착되지 말고 最大限의 伸縮性을 維持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北韓 共產主義者의 對南工作에 있어서 어떤 特定한 經驗도 絶對化해서는 안되며, 恆常 變化할 수 있는 그들의 戰術을 正確하게 認識하고 判斷함으로써 이에 適切하게 對應해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反共公式도 神聖化될 수는 없다. 行動의 樣式을 그것이 일단 制度化되었다 해서 絶對化해서는 안된다. 反共戰略에 있어서 行政的硬化 現象은 禁物이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彈力性和 創意力과 伸縮性을 견지해야 하며 어떤 特定한 公式이나 制度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共產主義者들의 戰術的狡猾을 克服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對共戰略은 共產主義者들이 소위 「反革命勢力」을 弱화시키려고 하는 획책을 막기 위하여 모든 反共 또는 非共勢力들을 권장하고 強化하고 成長시켜 나가야 한다.

共產主義革命은 社会体制內的 有機的이며 機能的인 集團들과 組織들이 不在하면 弱化되어 진공 상태를 이루고 있을 때 政權과의

反体制的 対決을 통하여 성공한다. 다시 말하면 政治体制를 革命的危機로 부터 保護하기 위해서는 政治体制를 機能的으로 保護할 수 있는 社会集團과 組織體들이 必要한 것이다. 이러한 集團과 組織이 建在할 때에는 共產革命이란 不可能한 것이다. 그러한 勢力들이 파괴되고 政權만이 아무런 保護集團도 없이 외롭고 말가슴이로 存在하게 될때 政權에의 革命的挑戰은 그것을 매개할 수 있는 어떤 中間集團도 없이 直接的으로 政權의 存在를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中間集團을 보호하고 育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集團들이 政治体制에 지나치게 依속화되어 있게 되면 實際로 政權을 保護할 수 있는 機能을 담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非反勢力集團들이 眞正한 意味에 있어서 共產革命 戰略을 좌절시킬 수 있는 機能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独自の 性格과 役割이 認定되지 않으면 안 된다.

以上에서 우리는 對共戰略의 原則 다섯가지를 提示했지만 이러한 原則들은 共產主義者들의 戰略을 分析하고 이에 對備하여 그것을 克服한다는 論理에서 구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結果적으로 여기에 提示된 對共戰略의 基本原則들은 우리가 指向하는 健全한 社会의 構造的 要請과 一致한다는 事實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結局 가장 효과적인 對共戰略이란 表面的으로 反共口號를 내걸고 소란스럽게 떠드는 것이 아니라 健全한 社会를 具現함에 있어서

內實을 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너무 막연한 結論이라고 하는 인상을 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共產革命의 歷史가 증명해 주는 가장 심오한 眞理인 것이다. 共產主義는 社會의 病을 藥으로 삼고, 分裂을 結束의 機會로 만들며 不条理를 革命의 條件으로 여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共產主義와 싸워 이기는 길은 그들의 宣傳이 적용되지 않는 社會, 즉 植民과 封建과 착취와 핍박이 해당되지 않는 건전한 社會를 이룩하는 것이다.